

공 사랑*



인격적 성교육, 사랑받고 사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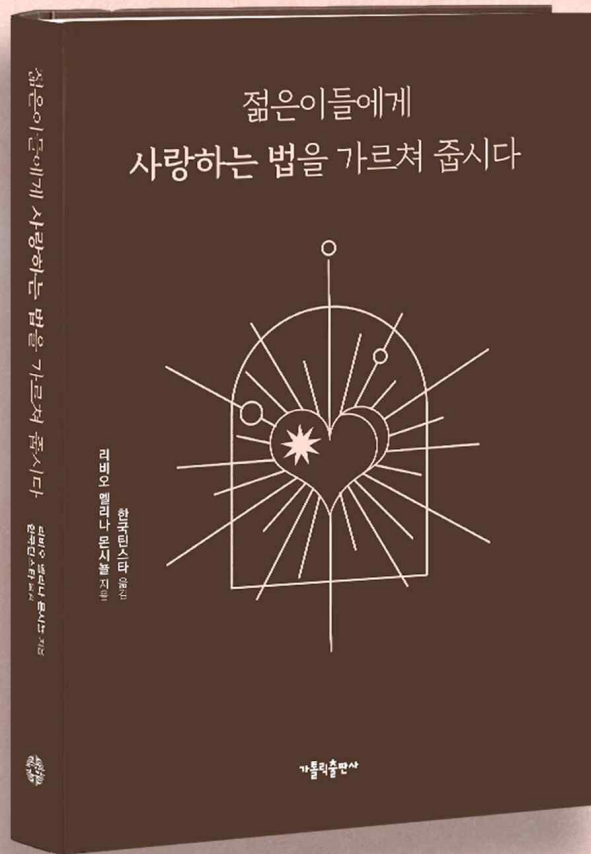
2025
통권 **63**호



한국틴스타 새 도서 발간

참된 사랑을 찾는 이들을 위한 리비오 멜리나 몬시뇰의 특별 강연

젊은이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시다



리비오 멜리나 몬시뇰 지음 | 한국틴스타 옮김 | 가톨릭출판사 | 20,000원

삶의 한가운데서 사랑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하느님 안에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더 깊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
당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몸이
당신의 신비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당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어루만져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마음과 몸에 남겨진
상처들이 치유되고 정화되어,
당신이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주님,
당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 안에 당신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진리를 알아보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아멘.

한국틴스타 소식지 몸사랑 63호 목차

들어가는 글

한국틴스타 운영 체제 전환 안내.....손호빈 신부

교육후기

진리를 보는 눈, 틴스타고은솔 도로테아
39살에 만난 '진짜 성교육'차윤정
어린이를 통해 순수한 눈 바라보기윤나영
난주마리아 수녀

나를 알고 그분을 압니다.....장민애 베레나
효명중학교 현장에서

2025 한국틴스타 전국모임 스케치

첫째날
둘째날
홈페이지 이용 안내

한국틴스타 지금

소개특강
프로그램 현장
틴스타 소식
후원자 명단



발행일 2025년 12월 (통권 63호)
창간호 2004년 10월
발행인 손호빈
발행처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https://teenstar.or.kr>
주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
E-MAIL kteenstar@hanmail.net
전화 02)727-2357~9
02)755-2629
팩스 02)727-2243



한국틴스타 운영 체제 전환에 대한 안내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 (한국틴스타 대표)

좋은 가치를 위해 동행해주고 계신
한국틴스타 교사와 후원자, 은인 여러분께,

한국틴스타의 시작

한국틴스타는 1992년 착한 목자 수녀회가 미혼모 지원과 청소년을 위한 한국 사회의 실질적 예방 교육을 위해 미국의 틴스타 (TeenSTAR)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본 인격적 성교육”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해 온 비영리 단체입니다. 프로그램 창립자 한나 클라우스 수녀님을 한국에 초청하여 지도자 양성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의 안경렬 몬시뇰께서 그 가치를 깊이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출발을 바탕으로 2004년 1월 ‘한국틴스타’가 정식 출범하였으며, 초대 대표로 착한 목자 수녀회 배 마리진 수녀님이 임명되었습니다.

틴스타의 정체성과 일관성 유지

국제틴스타 정책은 비영리 운영과 국가당 단일 라이선스를 통해 프로그램의 가치를 보호해 왔습니다. 이에 한국틴스타는 로고와 명칭을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정체성과 일관성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워크숍(지도자 양성 워크숍→교사

양성 워크숍→워크숍 기본&심화 과정)을 통해 많은 선생님들이 배출되어 각 지역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책임 있는 선택을 돕는 교육을 성실히 이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께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선을 위해 시간과 마음, 경제적 봉헌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덕분에 한국틴스타는 20년이 넘도록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사목국 협력단체

시간이 흐르며 여러 어려움(운영, 양성, 재정적)에 직면하였고, 그 결과 착한 목자 수녀회는 2016년 8월 한국틴스타의 운영을 서울대학교 생명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공백으로 오해가 생겨 일부 교구별로 지역 ‘틴스타’가 만들어지며 프로그램의 일관성에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한국틴스타는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사목국 협력단체로 소속을 변경하여 일치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으며, 2024년 국제틴스타와의 협약서를 통해 그 일치를 재확인했습니다. 같은 해 9월, ‘프로그램 교재와 교구(점액 관찰, 감정 기록 수첩)’의 저작권 등록 (1992년 2월 초판)을 완료하여 교육의 질과 권리를 보호할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평신도 중심의 운영체제로 변화 서울대교구 인준 평신도 사립단체

이제 한국틴스타는 2026년, 시대적 소명과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평신도 중심의 운영체제'(운영위원회 중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국제틴스타의 확인과 여러 나라의 사례와 같이, 틴스타는 평신도 중심 운영 아래 교회와 교구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틴스타도 이 방향으로 재편하여 사명은 변함없이 이어가되, 운영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편, 서울대교구 협력단체로 있으면서 받아온 정부 지원(문체부) 및 행정 지원 등은 평신도 단체로의 전환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한국틴스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함께 지켜 주신 교사, 후원자, 은인들의 기도와 봉헌을 깊이 기억하며, 이를 밑거름 삼아 '서울대교구 협력단체'에서 '서울대교구 인준 평신도 사립단체'로 소속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환은 한국틴스타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의 접근성을 높이며, 국제틴스타와의 일치 속에서 교육 품질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한국틴스타의 여정은 여러분의 동반과 헌신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1. 왜 평신도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나요?

A. 국제틴스타의 운영 원칙과 여러 나라의 사례와 같이, 평신도 운영위원회 중심 운영은 현장에 더 신속히 반응하고 유연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 단일 라이선스아래 교육의 일관성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한국틴스타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운영을 재편하며, 교회와 교구는 틴스타의 가치를 지지하고 행정·제도적 지원을 지속합니다.

Q2. 지역에서의 틴스타 프로그램은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틴스타의 표준 정책과 인증 체계를 준수하는 국가 단일 구조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로고 및 명칭 사용, 저작권, 프로그램 교육과정과 윤리 강령 준수는 필수입니다. 한국틴스타와의 소통을 통해 체계적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Q3. 저작권 등록된 교재·교구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2024년 9월 소급 적용(92년 2월 초판)된 교재와 교구(점액 관찰·감정 기록 수첩)는 표준 판본으로 배포되며, 무단 복제·수정·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수업 현장에서는 한국틴스타와의 소통을 통해 최신 개정된 교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업을 위해 최신 판 유지가 원칙입니다.

Q4. 후원과 회계, 기부금 영수증은 계속 발급되나요?

A. 네. 전환 이후에도 서울대교구의 회계 시스템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행정 지원은 지속됩니다. 또한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연간 재정보고를 공개하고, 관련 법령 및 교구 지침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한국틴스타 운영은 앞으로도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보는 눈, 틴스타

고은솔 도로테아
(분당 성모유치원.

232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워크숍 수료)

‘잘 듣고 배워서 신랑이랑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지’라는 생각으로 틴스타 기본과정을 신청했다. 지금 돌아해보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다.

미국에서 19년 살면서 학창시절 받았던 성교육은 몸의 구조와 기능, 개략적인 임신과 출산 과정, 그리고 피임법이었다. 콘돔은 학생들에게 생길 수 있는 해프닝에 대비한 필수품으로, 학교 간호사실에 항상 구비되어 있으니 언제든 필요하면 편하게 가져가라는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부모님의 동의서만 제출하면 출산 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주던 영상 한편도 기억에 남아있다.

이런 성교육 외에 성에 대해 가르쳐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기에 열 두 살 여학생에게 임신과 출산은 지난한 고통의 여정이며, 아름다울 수 없는 과정으로 낙인되었다. 하느님께서 배 풀어주신 거룩한 임신의 과정이 왜 이렇게 왜곡된 것일까?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계속 부어야 하듯 틴스타와의 만남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준 정화의 시작이었다.

‘과연 잘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시작했던 수업에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었다. 궁금증도 계속 늘어났고, 과거의 나를 반추하며 그날 배운 내용을 내 일상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도 고민하게 되었다. 천주교 신자로서 잊고 살던 것을 반성하기도 했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다. 그런 과정이 인간적이고 좋았다.

반성과 경이로움의 수업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도 배웠지만, 나의 성적인 몸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하느님을 닮은 부분인데, 수년간 괴롭히고 돌보지 못한 내가 부끄러웠다. 사실 우리에게 하느님과 닮은 점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고 사물에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받은 생명의 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자, 경이로움을 느꼈다. 긴 냉담을 풀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나에게 이 깨달음은 큰 울림이었다. 일상생활에서도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부터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날 나는 친정 부모님께도, 지방에 내려가 있는 남편에게도, 6살 첫째에게도 생명의 숨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결의를 다졌다.

나의 실천은 상대의 체험

첫 번째 수업에서 김혜정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인상 깊게 남았다. ‘아는 사람이 실천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체험이 된다’는 말이었다. 수업이 진행될 수록 부부 사이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를 느꼈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져갔다. 소중한 두 딸은 나의 ‘짓’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기신 선물로 바라보게 되었다. 등교 준비할 때 늦었다고 우격다짐하듯 얼굴을 씻어주던 첫째에게 더 부드럽게 세수를 해주었고, 말 안듣는 미운 세 살 둘째도 예전보다는 5초 정도 더 기다려주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변화 중에서도 제일 큰 변화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다.

남편에게 더욱 감사함을 느껴

사실 남편은 개신교 신자이다. 하지만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미명 하에 종교적 마찰을 피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아이들이 태어나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자 의견 충돌도 생기고, 조심스러워서 대화를 피하는 일도 생겼다. 그런데 틴스타를 계기로 그동안 잊혀졌던 신혼시절이나 첫째가 생겼을 때 느꼈던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되살아났고,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고 다시 노력하게 되었다. 나는 9개월 동안 아이가 뱃 속에서 자라는 것을 몸으로도 느끼면서 엄마가 되었다고 느꼈지만, 이러한 신체적 변화 없이 아파라는 정체성을 느끼게 된 남편의 숨은 노력이 나에게 새삼 경이롭고 감사하게 느껴졌다. 남편의 귀가 시간에 맞춰 두 딸과 마중나가고 먹고 싶은 것도 물어보면서 살가운 대화로서 주말을 시작하는 내 자신이 사뭇 대견하기까지 하다.

문제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틴스타

수업을 통해 내가 마주한 과제가 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숲을 바라보기보다 나무 한 그루에 집착을 하는 걸까? ‘성’도 ‘성교육’도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빠른 문제 파악과 신속한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 성을 문제라는 시선

으로 바라보면 부끄러운 것,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된다. 그 시대의 환경이나 정책 방향 혹은 다수가 문제라고 정하는 것들에 함몰되어 정작 성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려는 노력에 소홀해진다.

틴스타를 통해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무엇이든 문제로 여기기보다 그것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워크숍을 마치며 그 본질 안에 담긴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키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39살에 만난 처음 배운 ‘진짜 성교육’

차윤정

(분당 성모유치원.

232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워크숍 수료)

딸 부자집 막내딸이 아들 부자집 아들과 결혼

저에게는 언니가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네, 저도 딸입니다. 딸이 4명이나 있는 저희 집은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가정이었습니다. 학교마저 여중,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야 드디어 이성에 눈을 뜨게 되었으나 남자라고는 아빠 밖에 모르는 제가 남성을 잘 이해할 리 없었고 참 많기도 싸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형식적인 성교육과 엄마의 막연한 걱정은 저에게 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주었고, 진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자 친구는 반대로 남자 형제만 있는, 남자 속에서만 자란 친구였고 저희는 정말 많이 싸우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맞춰지고 이해했다 생각했었죠.

어린 남자도 이해하기 힘든 초보 아들 엄마

그런데 제가 아들 엄마가 되었네요. 어린 남자랑도 10년을 싸우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갑자기 남자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하다니 “오 마

이 갓!” 전 무교인데도 신을 찾게 되더군요. 기저귀를 갈아주는 법, 목욕을 할 때 생식기를 씻어주는 법 등 어린 남자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벌써 7살이 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차이를 궁금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성교육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연했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영상도 많이 봤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장 수녀님께서 부모 교육을 통해 틴스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소개특강을 받고 틴스타 워크숍을 신청

손호빈 신부님의 소개특강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땡’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강 들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나름 생물학을 전공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어릴 때부터 마음 깊이 새겨진 ‘성=부끄럽고 위험한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알았죠. 나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틴스타였습니다.

종교와 상관없는 보편적 가치

신자가 아닌 입장에서 종교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종교색이 너무 짙으면 공감을 못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시작하자 그 고민은 이미 다 끝내신 것처럼 비종교인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성교육은 인성교육이며, 내 몸은 곧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지식 안에서 가치를 찾다 나의 인생 수업, 틴스타

사실 아들 때문에 수강했던 틴스타에서 제가 인생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녀의 몸의 구조 차이, 생식기관의 차이 등 생물학적인 설명도 정말 자세하게 해주셨으나 그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느끼지 못했던 진짜 가치를 찾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쓰는 몇 글자에 그 감동을 차마 담을 수가 없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혜정 선생님께 낙태에 관한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피임과 낙태의 과정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신 대로 차근차근 제 안에 쌓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이 체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받는 중에 갑자기 낙태를 겪었던 언니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난 힘이 되어주지 못했을까’하는 마음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급하게 교실을 빠져나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필요로 했던 성교육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과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슴 깊은 곳에서 공감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허울뿐인 성교육은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워크숍을 신청하세요



그토록 불안했던 아들에게 해줘야 할 성교육과 다가올 사춘기를 맞이할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수강신청하세요. 이 말이 하고 싶어 길게 썼네요. 들어보시고 같이 느끼실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호빈 신부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아침 일찍 분당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39살에 처음으로 제 몸과 생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32차 워크숍 기본과정

어린이를 통해 순수한 성 바라보기

윤나영 난주마리아 수녀
(노틀담 수녀회)
232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워크숍 수료)

왜 달라요?

유치원 교사로서 첫 해에 겪은 일이다.
“선생님! ○○가 화장실에서 자꾸 봐요!”

순식간에 화장실은 울음과 소란으로 가득 찼다. 일곱 살 남자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간 여자 아이를 보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들여다봤다는 이유였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이에게 차분히 물었다. “왜 그랬을까?”

아이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뭘가 다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한정돼 있었다. 보면 안 되는 거야. 나쁜 행동이야. 친구가 불쾌해해. 예의가 아니야. 온갖 말로 설명해 보았지만, 아이의 질문 앞에서 번번이 막혔다.
“왜 다른데요?”

결국 나는 어설픈 설명과 함께 급히 상황을 마무리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사과가 오갔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내 안에 오래 남았다.

성교육을 해 주세요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매달 진행하던 부모 교육 모임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수녀님, 집에서 아이에게 성을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위한 성교육 시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요청에 나는 마치 스위치가 눌러진 기분이었다. 가장 예민하지만 어렵고, 하지만 직면해야 하는 질문을 다시 마주한 느낌이었다. 하느님의 섭리는 이렇게 나를 이끌고 계신 걸까. 마침 유치원 학부모 중 한 분의 도움으로 ‘한국틴스타’를 알게 되었고, 스물한 분의 어머니들과 함께 기초과정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들의 간절함 생명을 잉태한 자의 책임감

강의실에 모인 어머니들의 눈빛은 진지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앞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자라날 자녀들이 왜곡된 성에 빠지지 않고, 선물로 주어진 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함은 말보다 깊었다. 아마도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책임감이었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나 역시 수도자로서 한 번도 깊이 접하지 못했던 성의 본질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 담긴 인간 사랑의 이야기, 곧 ‘성’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몸은 선물입니다. 나도 선물입니다. 기초과정이 진행될수록, 그동안 ‘행위’로만 각인되어 있던 성에 대한 인식은 성찰과 정화, 그리고 생

식력에 대한 자각으로 확장되었다. 그 깨달음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졌다.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 후로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맞이하며 이렇게 인사했다. “너의 몸은 소중한. 너는 선물이야.”

성탄을 앞두고 일곱 살 아이들이 성탄제를 준비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아이가 소감을 나누었다.

“저는 제 몸이 소중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제 머리를 때리고, ‘다 내 탓이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몸도 소중하다는 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몸은 소중하다.’는 이 한 문장이 이렇게 깊은 울림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시고, 성을 선물로 주셨다. 존중받는 사랑, 인격적인 성. 몸은 곧 나 자신이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느님을 닮도록 창조된 존재이며, 우리 몸에 새겨진 성은 하느님의 숨결이라는 것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나를 알고 그분을 압니다

장민애 베네라
(분당 성모유치원,
232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워크숍 수료)

틴스타와의 첫 만남이 기억납니다. 2025년 가을, 여느 가을보다 유난히 단풍이 더디 물들고, 추위와 더위를 반복하는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일정이 겹쳐 학부모 교육에 늦은 걸음을 했지만, 성교육에 기대도 없었고,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성교육 강의들이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더할 뿐 갈등을 채우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신부님의 강연이 끝날 즈음, 나는 까치발 종종걸음 위에 늦은 미안함을 얹어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녀님께서 주신 소책자를 훑어내려 읽었습니다. 순간, 눈이 번쩍 띄었고, 나의 마음을 꼬옥 잡아맨 문구가 있었습니다. ‘인격적 성교육, 사랑받고 사랑하기’

나의 마음을 꼬옥 잡아맨 인격적 성교육, 사랑받고 사랑하기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의 성교육에서 빠져있던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옷을 입은 것 같은 이 모호한 느낌을 명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지만, 그것을 성교육으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느님의 사

랑,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교육에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의 소개특강 이후 유치원에서 워크숍 기본과정이 열렸습니다. 마음은 쉬이 정했으나 넘어야 할 언덕이 있었습니다. 시간과 비용 때문에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남편의 묵묵하지만 적극적인 물심양면의 지지가 있었고, 성모에서의 마지막 가을을 틴스타로 물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틴스타는 성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가치 확립과 실질적 적용까지 꼭 채운 선물 꾸러미같은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강의를 관통하여 마음을 울린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하느님의 시선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서 몸이 하느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거룩함의 필수 요소로 서술되는데, 알고 있던 말씀의 조각들이 표류하다가 틴스타 안에서 하나로 꿰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몸의 본질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몸이 바로 나라는 것, 하느님 닮은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참 벅찼습니다. 나의 몸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느님을 아는 것이어서, 배움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점액관찰기록표와 남성과 여성의 몸을 배우며,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몸이 어떻게 서로를 긴밀하게 도와가며 생명을 만드는지 생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신비롭고 신기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에 새겨진 하느님의 질서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평소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통하여 하느님의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곤 하는데, 틴스타를 통하여 내 몸 안에 하느님의 질서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몸의 질서, 그 질서 안에서 조물주를 닮은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둘째는 부부에 대한 하느님의 시선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선물로 내어주는 관계, 자기증여의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 결합을 그저 부부의 성적인 만남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려니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몸이 서로 도우며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생명을 전달하는지를 배우며 진정한 결합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결합은 한 몸, 즉 같은 사람이라고 할 만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증여가 조금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관계적 존재로 온전히 자신을 선물로 내어줌으로써 결국 나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오히려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부만이 생명이 있는 사랑의 증여를 할 수 있다니, 거룩하고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생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부부간의 전적이고 배타적이며, 조건 없는 자기 증여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아담과 하와,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까지 깨달음의 외연이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전적으로 교회, 즉 하느님의 성소인 우리를 위해 증여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께 주신 삶을 증여하여 하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는 하느님의 인격적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간 성과 피임에 관한 교회의 외침이 시대착오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하며 공허한 메아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크숍을 통하여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단단히 내면화하였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랑을 말하려면, 사람에게 변치않는 진리를 심어두신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은 생명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간의 사랑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품는 훨씬 더 자유롭고 깊고 충만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마음껏 사랑하도록 준비하시고, 허락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느님의 시선이 나와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머무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왜 성행위가 부부에게 허락된 행위인지 그것이 왜 하느님의 축복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삶의 소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는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틴스타는 이 두 측면을 동시에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섬세한 하느님의 본성과 같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나는 또한 남편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남편의 사랑이 나를 안심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며,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나는 매일 남편의 몸을 마사지해 주는데, 마사지를 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남편에게 배타적이고 온전한 자기 증여를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아마 마사지는 손길에 사랑이 조금 더 담겼을 것인데, 남편이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증여를 통하여서 결국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충만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내게 존재한다니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홀로 아름답지 않고 함께 아름답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 부부와 아이들이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틴스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입니다.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를 위해 부단히 달리는 신부님과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증여가 이런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소명을 위해 달음질하고, 자기를 내어놓는 증여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나에게도 요구됩니다. 나도 그분을 위한 자기 증여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나의 몸을 더 잘 알고, 배우자를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하느님을 더욱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느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효명중학교 현장에서

2025년 9월 8일 평택시 효명중학교 4층 교목실로 틴스타 활동교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현장이든 그러하지만, 특히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교목 신부님은 2학기에 틴스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틴스타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의뢰하기]를 요청하고 6개월을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한국틴스타와 교목 신부님이 학교의 여건에 대해 소통한 것까지 계산하면 1년 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해결점을 찾아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남녀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2시간 넘는 거리를 왕복해주신 김형일 선생님(김천), 김청림 신부님(의정부), 김종용 신부님(수원), 이상미 선생님(용인), 그리고 상현동 성당 팀, 원경희 선생님, 김신야 선생님, 한정재 선생님, 지순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틴스타



수업을 가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을까? 내가 잘못된 전달을 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을 매번 했던것 같습니다. 저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었으며 항상 같이해 주신 선생님들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해준 효명중 친구들에게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함께라서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이상미 레지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는 지 궁금했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나에게, 틴스타는 수수께끼와 스무고개를 넘는 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교안을 마무리하면서, 몸은 인격을 드러내는 성사라는 이 글이 틴스타 10주간 효명 친구들과 만난 모든 시간을 압축하는 듯 했습니다. 매주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눈빛, 목소리,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웃는 얼굴을 보면서, 마주하고 있는 나와 친구들의 모습이 거울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원경희 아가페)




이었습니다. 전 그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친 것만으로도 행복한 초보 교사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신야 아네스)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자격이 있을까?틴스타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호흡하는 과정, 그 순간들이 제게 선물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효명중 1학년 소녀들이 제게 준 보물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한정제 소피아)

 월요일 아침마다 평택 효명중으로 향했던 10주의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의 저항과 흔들리는 가치관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틴스타 교육의 의미가 더 뚜렷해진 시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끝까지 갈 수 있었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배움이었습니다. 아울러 무사히 수업을 마치고 정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 우리 선생님들께, 이 시간의 무게만큼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순화 아가페)

 모르는 게 약이라고, 수업 전에는 그저 내가 준비한 내용만 잘 전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중학생들을 만나보니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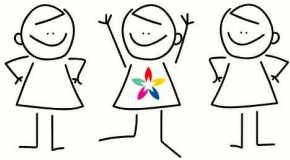
▲ 효명중학교 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현장



2025 전국모임 스케치

2025 한국틴스타 전국모임 및 재교육

11.22토~23일 | 저녁 7:0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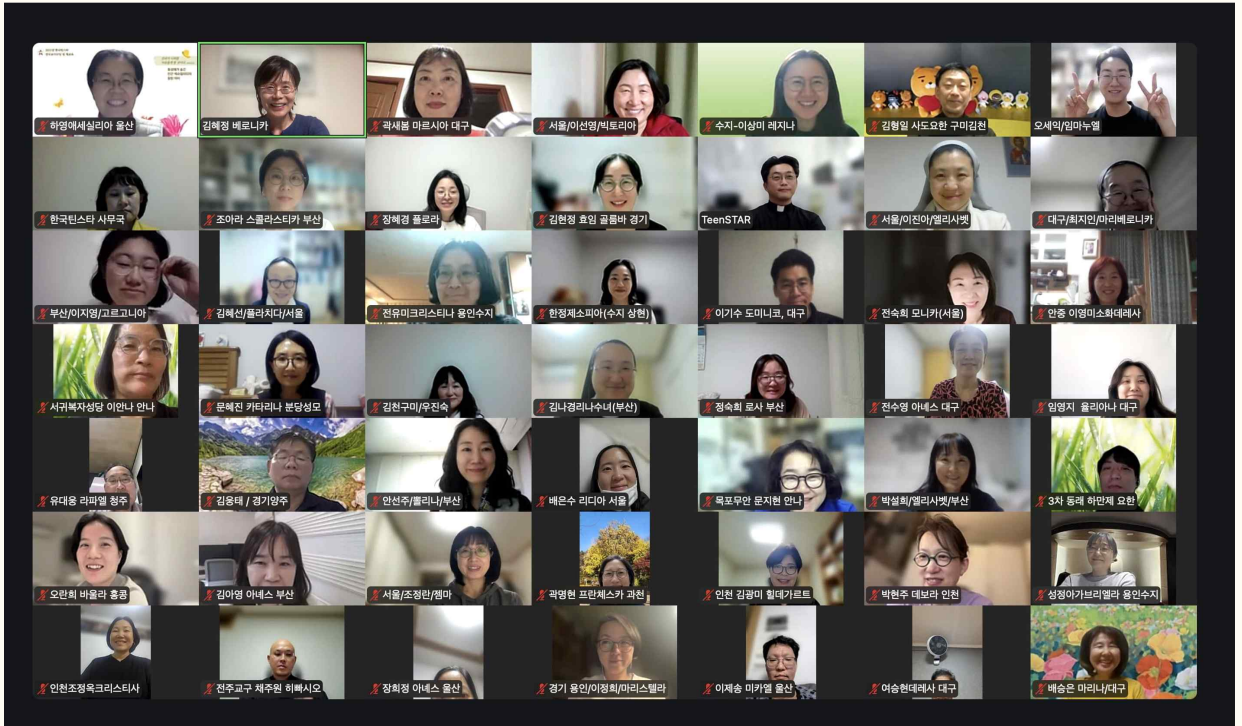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히브 10, 23)

2025년 온라인 전국 교사 모임 및 재교육은, 그동안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찾아가는 워크숍을 꾸준히 진행해 온 한국틴스타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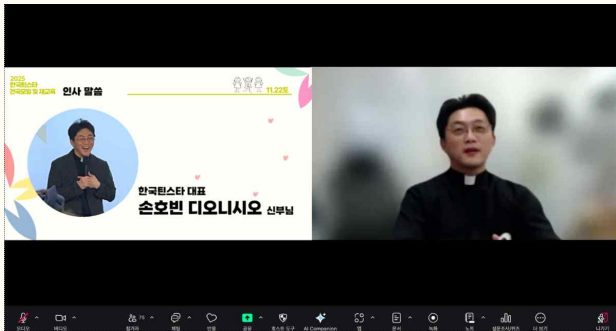
한국틴스타는 3~4년 전부터 본당과 기관 등 각 지역에서 교사양성워크숍을 열고 틴스타의 가치를 필요한 이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운영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동

안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교사양성워크숍이 마련되었고,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도전이 있으나, 주일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꾸준히 운영하는 현장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그램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쓰는 선생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날 11.2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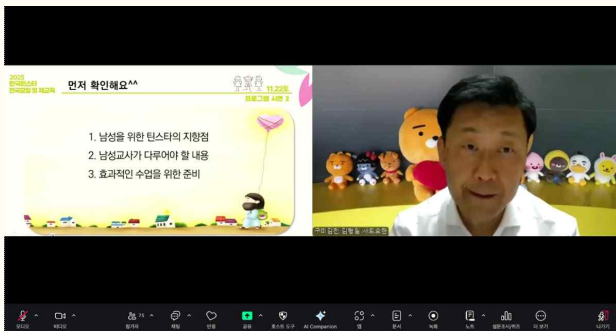
▲ 환영 인사로 전국모임을 열어주신 손호빈 신부님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시연 중인 장혜경 플라라 선생님



▲ 모자보건법 개정을 앞두고 출산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하여 작년엔 있었던 리비오 멜리나 몬시뇰의 강의를 함께 시청



▲ 김형일 사도요한 선생님의 남성을 위한 틴스타 시연을 통하여 남성 생식력 자각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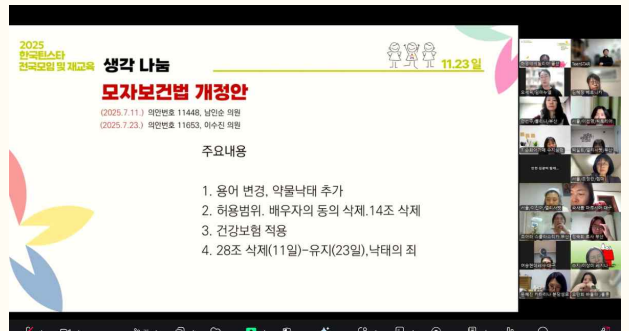


▲ 전체 진행을 맡은 오세의 임마누엘 선생님의 홈페이지 안내



▲ 생식력 자각 앱을 가지고 학생을 동반하는 법을 설명 중인 김혜정 베로니카 프로그램 디렉터

둘째날 11.23(일)



▲ 낙태를 단순한 의료 행위로 간주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현장 발표

홈페이지 이용 안내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워크숍 신청과 프로그램 개설, 수업 관리와 학생 면담 등 많은 활동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면 관계상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QR에서 홈페이지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1. 로그인

홈페이지와 한국틴스타앱의 로그인을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만 앱과 홈페이지가 연동됩니다. 처음 로그인한 방식을 꼭 기억하세요.



2. 등업 신청

상단 메뉴 오른쪽에 있는 **마이페이지**에서 워크숍 차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등업이 완료되어야 프로그램 개설 및 학생 관리 등의 메뉴를 이용하고, 수업자료실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워크숍 차수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문의게시판을 통해 연락주세요.

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의뢰하려고 할 경우 **프로그램 의뢰하기**를 이용합니다. 신청한 프로그램은 모두 마이페이지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 개설 후 교육 관리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마이페이지> 프로그램 관리**에서 **시작보고서**와 매 회차 **수업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종료보고서**도 여기에서 작성합니다. 별도의 팩스나 메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수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작성한 교안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는 교안은 담당 선생님과 한국틴스타 사무국만 볼 수 있으며, 보고서가 있는 활동만 틴스타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교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함입니다.

3. 교육 신청하기

홈페이지 메뉴 **교육안내>신청하기**를 이용하거나 오른쪽 킷메뉴에서 교육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교육을 신청하거나 혹은 교육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나갈 때 **프로그램 개설하기**를 눌러서 프로그램 개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



5. 생식력 자각 그룹 관리

마이페이지의 생식력자각 그룹관리 메뉴를 이용하면 학생들이 한국틴스타 앱의 생식력 자각 탭에서 기록한 생리주기학습표나 점액관찰기록표를 종이에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장별로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앱을 이용하면 차트를 공유하고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차트 기록과 생식력 자각을 쉽게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홈페이지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소개특강

- 9.9 분당 성모유치원
- 10.26 서울 도림동 성당
- 11.9 수원 상현동 성당
- 12.6 서울 신천동 성당



◀ 분당 성모유치원 소개특강

2025 하반기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수업 현장

분류	지역	현장명	프로그램명	현장교사
종교 단체	대구	육수성당	3단계, 4단계	곽새봄, 조아랑, 조홍범
	수원	상현동성당	2단계, 3단계	전유미, 지순화
	부산	동래성당	1단계	정숙희

* 어린이 프로그램을 첫 수업현장으로 진행한 교사는 정교사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 부산 동래성당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 구미 평화성당 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2025 하반기 한국틴스타 수업 현장

분류	지역	현장명	활동교사
학교	광주(경기)	푸른숲발도르프학교(소년소녀)	김귀경, 임승후
	수원	효명중학교(소년소녀)	원경희, 김청림신부, 지순화, 김형일, 김신야, 이상미, 김중용신부, 한정제
	인천	소명여자중학교(소년소녀)	황윤정, 김광미, 김진경, 송지현
	포항	오천중학교(소년소녀)	문태근, 서성진, 신보경, 이윤정, 이창영신부
종교 단체	구미	평화성당(소년소녀)	우진숙, 김형일
	대구	고성성당(여성,남성)	임영지, 이기수
		범물성당(소년소녀)	김재기, 배수경
	부산	동래성당	박설희, 안선주, 김아영, 하만제, 조아라
	서울	착한목자수녀회양성소(성인)	김혜선 수녀
기관	수원	상현동성당(소년소녀)	소영진, 한정제, 이상미, 원경희, 김신야, 이지은
	의정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멘토상담실(성인)	조정란
	서울	명동영성센터(소년소녀)	전찬용

홍보

- 후원자 모집을 위한 본당 홍보
: 서울대교구 대흥동성당(8.23-24),
서울대교구 9지구 중고등부 청소년축제(11.2),

한국틴스타 워크숍

〈기본과정〉

- 232차 분당성모유치원(8회)
2025.10.13.~11.27.
- 233차 양산 웅산성당(8회)
2025.12.4.~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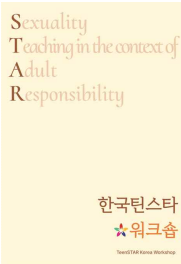
〈교사양성과정〉 심화과정

- 2026.10.18. 명동 영성센터
- 2026.12.27. 명동 영성센터

- 234차 상현동 성당(7회)
2026.1.11.~2.22
- 235차 여주 소화유치원(8회)
2026.1.16.~2.13.
- 236차 수원가톨릭대학교(9회)
2026.1.22.~2.24.

교재개정

- 워크숍 교재 개정판 발행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와 함께해 주세요.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후원하기를 작성하시거나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는행 1005-804-490599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性)을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충만한 생명력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틴스타와 함께 해 주세요.

발간

- 참된 사랑을 찾는 이들을 위한 리비오 멜리나 몬시뇰의 특별 강연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줍시다〉 발간.

루르드 성모회

한국틴스타에 천만 원 기부

- 루르드 성모회(지도신부:김명섭)는 2025년 12월 10일 월례미사에서 한국틴스타를 통해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천만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루르드 성모회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사랑·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틴스타 후원자 명단]

후원자 명단에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개인 정기 후원

강경주, 강경희A, 강경희B, 강귀선, 강명선, 강명주, 강미령, 강민경, 강보심, 강성실, 강성일, 강수진, 강영자, 강현규, 강현순, 고경신, 고기판, 고담미, 고미영, 고종은, 고행자, 고훈신, 공수민, 광경옥, 광규호, 광도희, 광명현, 광현선, 구순모, 구원석, 권세봉, 권선주, 권소영, 권옥경, 권윤주, 권청준, 권현주, 권화영, 권희봉, 금미경, 김경수, 김경희, 김공옥, 김관수, 김광미, 김광혜, 김귀경, 김귀임, 김규선, 김금남, 김기덕, 김기용, 김기환, 김길자, 김나현, 김내영, 김대성, 김도희, 김동현, 김말순A, 김말순B, 김명섭, 김명숙, 김미숙A, 김미숙B, 김미영A, 김미영B, 김미영C, 김미찬, 김미하, 김민요, 김민자, 김민지, 김민철, 김민호, 김보연, 김봉자, 김상미, 김서희, 김석울, 김선미A, 김선미B, 김선민, 김선영, 김선영, 김선옥, 김선이, 김선자, 김선주, 김선화, 김성, 김성도, 김성순, 김성천A, 김성천B, 김성희, 김소영, 김송연,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정, 김수진, 김순심, 김승희, 김신야, 김애경, 김애경, 김양수, 김양옥, 김여옥, 김연범, 김연수A, 김연수B, 김연정, 김영경, 김영숙A, 김영숙B, 김영순, 김영진, 김영희, 김옥순, 김외택, 김용권, 김용성, 김원권, 김윤아, 김윤정, 김윤혜, 김은기, 김은실, 김인순A, 김인순B, 김자은, 김재관, 김재림, 김재희, 김전희, 김정미,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애, 김정은, 김정현, 김종용, 김종호, 김종화, 김주경, 김주환, 김지선, 김지원, 김진선A, 김진선B, 김진섭, 김진호, 김창남, 김청림, 김춘태, 김충경, 김치경, 김탄렬, 김태수, 김태순, 김태완, 김태원, 김해숙, 김해옥, 김해은, 김향란, 김향숙, 김현구, 김현석, 김현순, 김현영, 김현정, 김현지, 김형근, 김형기, 김형모, 김형일, 김혜선, 김혜숙, 김혜순, 김혜영, 김혜정, 김혜진, 김호겸, 김홍철, 김화영,

김효정, 김훈, 김희옥, 김희정, 김희진, 나영훈, 나인실, 나종진, 남길용, 남봉, 남옥경, 남윤지, 남청림, 남향오, 노봉수, 노정순, 도복순, 두향선, 류기운, 류재수, 명남휘, 명현식, 모철완, 문명주, 문명하, 문요한, 민승희, 민혜원, 박귀화, 박규식, 박기웅, 박동호, 박명자, 박미경, 박미수, 박미화, 박민계, 박병남, 박병은, 박복순, 박봉자, 박상훈, 박서준, 박선영, 박선은, 박선희, 박수진A, 박수진B, 박신안, 박영신, 박영자, 박영제, 박영희, 박원기, 박은영, 박은호, 박은화, 박은희, 박인서, 박장민, 박정남, 박정숙A, 박정숙B, 박정아, 박정우, 박제준, 박종민, 박중천, 박지연, 박진희, 박찬영, 박철, 박해량, 박효정, 박휘중, 박희중, 방경준, 방미경, 방정희, 방춘자, 방형주, 배계용, 배성희, 배안나, 배연희, 배윤주, 배윤주, 배정은, 배현미, 백다혜, 백민주, 백진환, 백해경, 백현주, 백화진, 변미선, 서계원, 서동준, 서미영, 서영애, 서은지, 서정옥, 서정희, 서춘애, 성남숙, 성미희, 성양경, 성진우, 소지연, 손경숙, 손광옥, 손상열, 손선영, 손영수, 손호빈, 송명우, 송미숙, 송선경, 송영숙, 송은희, 송자연, 송지연, 송지현, 송채영, 송현석, 신경미, 신경숙, 신경숙, 신미경, 신미영, 신선미, 신소라, 신숙경, 신윤지, 신재인, 신진희, 신현자, 심부덕, 심수연, 심영숙, 심은남, 안경덕, 안경렬, 안기주, 안명옥, 안수빈, 안재강, 안봉순, 안석주, 안소연, 안수경, 안승관, 안시권, 안인숙, 안정남, 안준현, 안효진, 양기선, 양대섭, 양영자, 양영희, 양종진, 양주열, 양지윤, 양지현, 연구순, 연수자, 염숙자, 염승아, 오경애, 오경택, 오국록, 오란희, 오세민, 오세욱, 오수동, 오연수, 오영수, 오요한, 오은주, 오인석, 왕길자, 우미란, 우상숙, 우소영, 원경희, 위선희, 유경진, 유기상, 유영숙, 유민정, 유병일, 유송자, 유순희, 유승상, 유시은, 유연서, 유연실, 유영규, 유자경, 유재경, 유재록, 유재욱, 유준서, 유지애, 유형욱, 윤경섭, 윤경자, 윤경희, 윤병준, 윤선경, 윤연숙, 윤오선, 윤옥순, 윤정애, 윤종섭, 윤지은, 윤진희, 윤혜숙, 은주, 이경림, 이경미, 이경원, 이경자, 이경화A, 이경화B, 이광남, 이규숙, 이규순, 이규현, 이근주, 이금자, 이금화, 이나겸, 이나양, 이동준, 이명희, 이문호, 이미영, 이민하, 이범의, 이병욱, 이보나, 이보현, 이상규, 이상만, 이상숙, 이상순, 이상현, 이상호, 이서준, 이선영, 이선주, 이선화, 이수경, 이수산, 이수호, 이숙기, 이순례, 이순자, 이순재, 이순희, 이승호, 이승희, 이안나, 이애자A, 이애자B, 이연희, 이영숙A, 이영숙B, 이영숙C, 이영신, 이영애, 이영옥, 이영호, 이영희, 이유정, 이유진, 이윤숙, 이윤환,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A, 이은영B, 이은정, 이은주, 이임재, 이정례, 이정미A, 이정미B, 이정민, 이정은A, 이정은B, 이정현, 이정화, 이정희A, 이정희B, 이종열, 이종원, 이종희, 이지영A, 이지영B, 이지원, 이지은, 이지향, 이지현, 이진호, 이판순, 이하나, 이한봉, 이현심, 이형윤, 이해연, 이해영, 이해정A, 이해정B, 이호욱, 이홍경, 이희정, 이효순, 이훈정, 이희경, 이희정, 이희환, 인성룡, 임경윤, 임광희, 임병조, 임세빈, 임수자, 임순옥, 임승희, 임원, 임주빈, 임춘애, 임해원, 임화열, 장성욱, 장수연, 장숙일, 장영록, 장유리, 장윤정, 장지숙, 장해진, 장혜경, 장희선, 전금숙, 전수정, 전영희, 전유미, 정광미, 정말숙, 정명

호, 정무중, 정문호, 정미영A, 정미영B, 정미혜, 정병모, 정성희, 정숙희, 정양숙, 정옥영, 정용문, 정용순, 정은교, 정이숙, 정인향, 정재우, 정재현, 정주연, 정지원, 정진선, 정찬국, 정해인, 정해정, 정현숙, 정형민, 정혜정, 정화주, 정효주, 정효준, 조문석, 조미경, 조미선, 조미영, 조미희, 조병호, 조복희, 조성옥, 조성희, 조수현, 조안나, 조연화, 조영신, 조영희, 조용운, 조우준, 조원준, 조은아, 조재림, 조정란, 조진화, 조화수, 조희수, 주덕례, 지순화, 지원호, 지효영, 진성욱, 차민주, 차상일, 차영미, 차혜정, 차혜진, 차효숙, 채도근, 채민정, 채주원, 최공선, 최도환, 최명숙, 최병혜, 최보현, 최수녕, 최순옥, 최승화, 최양임, 최연수, 최용희, 최원선, 최윤서, 최인영, 최재민, 최재분, 최정숙, 최정희, 최주리, 최주희, 최춘단, 최향순, 최현숙, 최훈, 최희재, 편성미, 하경희, 하영애, 한경숙, 한승덕, 한승희, 한윤희, 한종례, 한호직, 한희석, 허동(주)메탈153, 허성학, 허성희, 허옥희, 허정호, 허희숙, 현동인, 홍경연, 홍사훈, 홍선자, 홍성지, 홍수정, 홍영숙, 홍은미, 홍인지, 홍현진, 홍혜정, 홍호선, 황광수, 황금화, 황명숙, 황보은, 황선미, 황유숙, 황현정

개인 일시 후원

감건중, 강대일, 강동채, 강지인, 경애선, 고수현, 공택영, 구선옥, 국봉, 권선옥, 권성원, 김가영, 김건중, 김경숙, 김경자, 김경희, 김균일, 김근영, 김다빈, 김도희, 김미나, 김미숙, 김미정, 김민정, 김상병, 김셋별, 김선민, 김성아, 김소연, 김순임, 김아네스, 김양래, 김영화, 김영훈, 김윤진, 김은솔, 김인순, 김인정, 김종구, 김형일, 나종진, 도현주, 마유경, 명소형, 문동오, 문순자, 문입숙, 문재상, 박경식, 박광연, 박명석, 박명주, 박선희, 박영주, 박재훈, 박지영, 박현숙, 방은덕, 백정은, 서정은, 서지은, 송송이, 송영재, 송정란, 심미혜, 신호선, 심보현, 아네스, 안연미, 안연정, 안은아, 안젤라, 양성심, 오명근, 오세익, 오영숙, 오윤경, 오은희, 오태숙, 온윤권, 우운선, 원경희, 원영희, 유기순, 유수정, 이경진, 이경화, 이내영, 이단비, 이명희, 이상주, 이서영, 이수연, 이영란, 이영미A, 이영미B, 이왕재, 이원희, 이은경, 이은미, 이은숙, 이은주, 이정원, 이정은, 이주연, 이창숙, 이하랑, 이학수, 이행자, 이현미, 이화경, 이효숙, 임춘애, 장세은, 장은령, 장인순, 전동훈, 전미선, 정문미, 정슬기, 정일중, 정태욱, 정현철, 조병채, 조영옥, 조창현, 조천경, 진명희, 진미자, 천정화, 추희선, 하명순, 한경희, 한승훈, 한은환, 한희숙, 허균, 허남석, 허미애, 홍지연, 황경은

단체/기관 정기 후원

한국티스타_구미김천 교사회

단체/기관 일시후원

구미 김천평화성당, 루르드 성모회,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성당, 서울 대흥동성당, 서울여자가르멜수도원, 서울 일원동성당, 서울 하계동성당, 수원 상현동성당, 착한목자 대외협력센터 사립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사춘기를 시작하는 소년,소녀를 위해
틴스타가 준비한 선물,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이
함께 보세요!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3단계와
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그 사이 단계에 있는
소년,소녀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신청 QR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성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는 오늘날
사춘기를 막 시작하는 소년, 소녀들을 위해
엄마와 함께 딸의 사춘기, 아빠와 함께 아들의 사춘기를 준비해주세요.

사춘기를 시작하는 소년, 소녀들이
다이어리를 적듯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의미를 깨닫고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작업과 혼자 하는 활동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사춘기를 시작하는 소년, 소녀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틴스타의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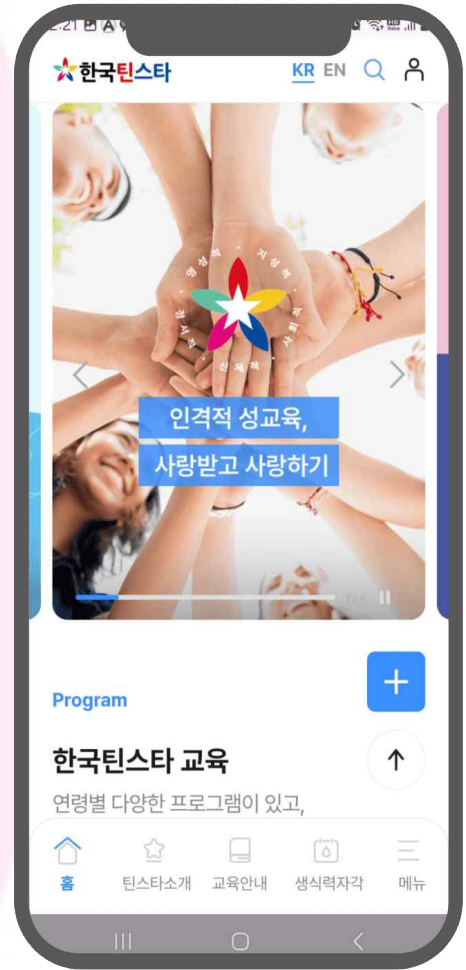
틴스타 교사들의 필수앱

한국틴스타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공지사항 전달이나
자료 다운로드에 그치지 않고
워크숍 신청 및 프로그램 개설,
생식력 자각과 학생 면담 관리까지
한국틴스타앱 하나로 해결!

한국틴스타앱으로 할 수 있어요!

1. 알람 설정으로 한국틴스타의 최신 소식과 자료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2. 틴스타 활동 교사 검색 기능을 통해 틴스타 프로그램 사칭 여부도 확인 가능해요.
3. 워크숍과 프로그램, 소개특강도 앱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틴스타 프로그램 개설도 앱으로 요청하세요.
4. 생식력자각 탭에서 생리주기표, 점액관찰 기록표, 감정기록표를 편리하게 기록해요.
5. 차트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앱으로 기록한 차트를 확인하고 쪽지보내기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세요.



자신의 몸과 소통하고 자연주기법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식력&감정 기록 앱입니다.

몸이 말하는 신호들(Sign)을 통해 몸의 기능이 아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식력&감정 자각 앱은 당신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국틴스타 워크숍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개별 면담을 통해 동행해 드립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한국틴스타를 검색하세요!

한국틴스타

